폐막식 사회자 소이현 · 인교진 배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5월 10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서 진행되는 폐막식 사회자 선정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5월 10일 19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폐막식 사회자로 소이현, 인교진 배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폐막식 사회를 맡은 소이현 배우와 인교진 배우는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의 호흡으로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를 맡은 바 있어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이 깊다.

먼저 2005년 드라마 「부활」로 커다란 주목을 받으며 데뷔한 소이현 배우는 전주 출신으로 올해 전주시 홍보대사로도 위촉돼 전주국제영화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라 할 수 있다. 「뷰티 유레카 시즌2」를 비롯해 다수의 예능과 유튜브 채널에서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면서도 다양한 드라마에서 선악을 넘나드는, 다채롭고 안정적인 연기로 호평받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에서 캐릭터에 깊이 몰입하게 하는 악역 연기로 극찬을 받았고 드라마 「빨강구두」에서 피해자이지만 복수를 위해서 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입체적인 연기로 2021 KBS 연기대상, 2022 에이판 스타어워즈에서 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소이현 배우

인교진 배우

이어 인교진 배우는 출연작마다 진지한 면모부터 유머러스한 매력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선보인, 올해 데뷔 23주년을 맞이한 베테랑 배우다. 최근에는 「꽃선비 열애사」, 「갯마을 차차차」, 「오! 삼광빌라!」 등과 「찐팬구역」, 「고딩엄빠」, 「오은영게임」 등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들며 따뜻하고 유쾌할 뿐만 아니라 허당미까지 있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과 웃음을 끌어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대중에게 따뜻하고 유쾌한 에너지를 선사하는 인교진 배우가 아내이자 동료인 소이현 배우와 20회에 이어 제25회 폐막식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을 자아낸다.

한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일 막이 오른다.

/장은성 기자

“소리축제 얼굴 ‘소리천사’ 찾아요”

전주세계소리축제 자원활동가 6월 14일까지 모집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는 4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소리축제를 더욱 빛내줄 자원활동가 ‘소리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리천사’는 축제 기간 중 행사장 곳곳에 배치돼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원활동가다.

올해는 새롭게 신설된 사전소리천사를 비롯해 기획팀, 무대팀, 행사팀, 홍보팀 등 총 5개 분야에서 인원을 선발한다.

이에 따르면 사전소리천사는 소리축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7월 19일부터 축제가 끝나는 8월 18일까지 한 달간 활동한다. 그 외 선발된 인원은 축제 하루 전날인 8월 13~18일 엿새간 공식 활동을 펼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리천사 교육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접수는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 내 ‘소리천사’ 전용 페이지(www.sorifestival/angel)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는 소리축제 측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합격자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6월 28일 최종 발표된다.

한편 선발된 ‘소리천사’는 오리엔테이션 및 팀별 세부 교육, 발대식 등 사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활동이 끝난 후에는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수 활동을 한 소리천사에게는 상장과 상품이 수여된다. 또한, 봉사 활동 기간 중에는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고 유니폼, 가방, ID카드, 폭염 대비 물품 등도 함께 지급된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소리천사는 소리축제의 주인공이자 얼굴”이라며 “자신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소리천사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모집 공고는 소리천사 전용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angel)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52-835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국제영화제만의 독특한 영화관 ‘골목상영’

전주 영화의거리 · 부성길 등 5개 장소서 총 14편 영화 상영

전주국제영화제만의 독특한 영화 상영 이벤트인 골목상영이 돌아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2회 때 처음 선보인 이래 전주국제영화제의 대표 부대행사로 자리 잡은 골목상영이 올해도 열릴 예정이다.

전주국제영화제의 골목상영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도 매력적이고 특색 있는 지역 공간들을 상영 장소로 선정해 영화제를 찾은 관광객과 관객들에게는 색다른 영화 관람 경험을 제공하고, 전주 시민들에게는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획된 전주국제영화제만의 특별한 이벤트다.

올해는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영화문화발전위원회, 무명씨네 등 지역 내 소규모 영화제와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영화·영상 유관 단체들과의 협업을 확대했다. 협업단체들은 상영작 선정을 비롯해 상영 전 작품 소개, 상영 후 게스트 초청 GV 진행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한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골목상영은 5월 3일부터 9일까지 총 5개 장소에서 매일 20시, 2회 상영 등 총 14편의 상영작으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고창향교에서 판소리를 탐하다’ 문화프로그램 운영

고창향교영농조합법인(전교 신영남)이 ‘고창향교에서 판소리를 탐하다’라는 주제로 고창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판소리의 풍류를 즐기는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고창향교에서 판소리를 탐하다’ 프로그램은 문화재청의 2024년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 공모사업에 올해 처음 선정되어 총5000만원으로 추진된다. 4월 26일부터 12월까지 13회에 걸쳐 고창향교와 고창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고창향교에서는 선비정신을 함양하는 역사교육을 진행한다. 선운사·고창고인돌유적·운곡 탑사르습지 등 고창지역의 문화유산 탐방 및 기후변화 속 문화유산 보존 탑방형식으로 진행되어 고창판소리의 풍류를 즐기는 답사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창의 문화유산 탐방과 고창판소리 향유를 결합한 답사프로그램은 ‘죽기전에 꼭 가봐야 할 고창 힐링투어’, ‘고창향교에서 판소리를 탐하다’, ‘고창애뜰에서 하나되는 우리공동체’ 등 세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고창군 문화유산 탐방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학생, 고창지역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영남 전교는 “6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창향교를 배경으로 유학정신과 선비정신을 함양하고 고창판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고창지역에 있는 문화유산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윤옥 고창군청 문화예술과장은 “고창향교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잊어버린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청소년들의 인성함양 및 사회도덕성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문화유산이 역사교육의 장이자 군민과 관광객이 수준 높은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운영 문화시설 5월 9일까지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운영 문화시설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6개 시설별 2천7백만원 등 총 1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다. 접수는 이메일(munha0338@gmail.com)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문화기반시설이자, e나라도움(예치형) 교부 가능시설이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 자격에 해당하는 의무배치시설을 우대한다.

한편 공모에 선정된 문화시설은 공개채용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영남 작가 ‘손으로 빚은 빛’ 기획전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5월 9일까지 김영남 작가의 ‘손으로 빚은 빛’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자연의 색에 매료돼 천연염색으로 20여 년 삶을 이어온 김영남 작가와 함께 홍화·쪽·치자·감 등 자연 원료에서 침출 되는 본연의 색과 원료 혼합, 농담 조화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자연의 색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천연염색 명주와 모시로 지어진 한복을 통해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관람객에게 아름다운 천연 색(色)문화의 가치를 선보여 K-컬처의 영향으로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복 고유의 색감과 우수성, 조화를 전달한다.

전시를 연출한 김영남 작가는 국가무형문화재 염색장 정관채 이수자로 지난해 국제문화예술명장명인회에서 섬유공예 천연염색 분야 명장으로 인증받고 있다.

이와 관련 5월 3일에는 ‘김영남 작가와 함께하는 천연염색 워크숍’을 진행, 염료로 사용가능한 자연원료와 염색과정에서 변화하는 색 등 천연염색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한복의 디자인과 전통, 입는 방법 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한복의 색감”이라며 “이번 전시가 시민들에게 한복의 본질과 의미를 전달하고 새로운 영감과 창의성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